

“무주 산불 대응 2단계 발령… 주민 피해 최소화”

전북자치도, 산불 진화에 총력… 진화율 85%

4개 마을 221명 대피, 헬기·소방인력 총동원

전북 무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9시 22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819-1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4개 마을 221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산불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공무원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607명이 동원되었다고 밝혔다. 현재(오후 5시 기준)는 721명

이 동원됐다.

동원장비는 헬기 4대, 소방차 21대 등 각종 소화장비가 동원되어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는 26일 오후 9시 28분 119로 접수되었고, 접수 후 긴급 재난문자를 3회 발송해 혹시 모를 인명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산불은 26일 오후 9시 22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의 한 주택에서 지은 창고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됐다”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 면적은 30ha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후 5시 기준으로는 피해 면적이 85ha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바람이 거세지면서 불



오랫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이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무주산불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길이 여러 방향으로 확산됐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오 실장은 “대터마울, 거문동마울, 대소마울, 울소마울 등 4개 마을 주민 221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현재는 마을회관과 부남면사무소 등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

만, 일부 가옥과 농경지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오 실장은 “산불 대응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에 2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며 “현재 소방과 산림청

인력 500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차를 총동원해 불길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오 실장은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최초 발화 원인이 전기 합선인지, 기타 원인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달라”며 “전북자치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불 진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85%이고 오후 6시 30분까지 헬기로 진화작업을 펼쳤다. 28일 오전 6시 30분 무주군, 군부대, 경찰 등이 잔불정리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산불 진화 재난 예방에 최선”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예방·대응 체계 보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최근 발생한 무주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진화와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소영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26일 무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도민이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며 “현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화 작업에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당 민생지원팀은 무주 현장에 있어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

이다. 특히,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산림 인근에서 소각 행위를 삼가는 등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대변인은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산불 피해 복구·이재민 지원 총력

피해 주민들에 위로 전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전북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하며 “특히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과 정읍 지역에서도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13동이 불에 타고,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다.

임 대변인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라며 “산불로 인해 19명의 주민과 소방대원,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고, 26일에는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불로 희생된 분들과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대원·공직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산불을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회에서의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서도 정읍 무주 순창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상 고온에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진화 도중 부상을 당하며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만호 기자



무주 산불 피해 주민 위로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무주군 부남면사무소를 긴급 방문해 산불 피해 진화 상황을 점검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도의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

“중앙부처 협업 이력·공공기관 이해도·지역 관심 ‘3無’”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오양섭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3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번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인 김대중·김동구·김만기·김이재·서난이·이병도·임종명 의원과 의장 추천 의원인 강태항·권요안·이명연·전용태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오전에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 수출 활성화 방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대책, 상용차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영 계획 등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답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상용수출실 이사 출신으로서의 경력을 고려할 때 높은 전문성이 기대였으나, 공공기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자동차융합기술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협업 경험에 전무해 중앙공모사업 선정이 중요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저조한 국비 확보 등 세입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대책이 보이지 않아, 경영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후보자가 자동차 관련 대기업 이사 및 경영 컨설팅 고문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으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이 부족했다. 특히, 미국

관계정책 등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오후에도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질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가오는 28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양섭 원장 후보자는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 서울대 기계설계학, 사우스웨스턴대학원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198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선임연구위원, 상용수출실 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티에스커리어 컨설팅 경영자문으로 재직 중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항 유지 준설예산 늘려야”

도의회, 국회 찾아 현안 조속 해결 건의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7일, 국회를 찾아 토사 퇴적 현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군산항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 및 도 해양항만과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 윤준병·신영대 의원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군산항 유지 준설비 예산 확대, 제2 준설도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 하굿둑 상류 구간 준설 등을 건의했다.

군산항은 작년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금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급격히 쌓이며 수심이 낮아져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톤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으나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선박이 회항하거나 선체가 바닥에 닿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져 물동량이 감소해 계약 물량 대비 함차당 물량 축소에 따른 화주의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적도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년 예산이 한참 부족한 상황에 더해 그간 준설토를 수용해 오던 금강도 투기장마저 2년 뒤 포화 상태에 이르러, 준설 예산 확대와 제2준설도 투



기장 신속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토사 퇴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도의회 및 도와 상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승우 의장은 “우선 적절한 유지 준설예산 확보와 제2준설도 투기장의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져야 수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산항은 도내 유일한 국가 무역항일 뿐 아니라 군산 지역 경제의 핵심이기에, 상시 준설 체계 또한 구축하여 다시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잇따라

기획행정위·농업복지환경위·문화안전소방위·교육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가 27일 현장의정활동에 나섰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이날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형열 위원장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분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 서비스를 지원하여 내·외국인이 하나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전북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힘써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

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기반 확충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하안양육집’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의정활동은 전북도지사 관사 시설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53년 만에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자 휴식 공간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 한 하안양육집에 대한 운영상황 청취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인 인산학성교육문화관을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양서연 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지원 △ESG 실천교실 특색서 인문교육 △수영교육과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중학교 문해교육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세심히 살펴보고있다. /이만호 기자